SK, 4/4분기 수익성 개선 기대

대신증권, 정기보수 집중 ... 3/4분기 영업이익 6.5% 하향조정

대신증권은 9월6일 SK에 대해 4/4분기 정제마진 개선 전망을 감안하면 최근 주가 조정기에 매수관점으로 접근하라며 목표주가 8만3000원,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.

안상희 애널리스트는 “SK의 3/4분기 영업이익이 최근 정제마진 약세로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”며 “3/4분기 영업이익을 약 3057억원으로 종전 예상치보다 6.5% 하향조정했다”고 설명했다.

그러나 “4/4분기에는 계절적 성수기라는 점 외에도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정유기업들의 정기보수가 평년 수준의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기보수가 몰려 정제마진도 탄력적으로 개선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따라서 “현재 단순 정제마진 하락에 따른 주가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나, 4/4분기 정기보수 집중에 따른 정제마진 개선 전망 등을 감안해 최근 조정 시기에 매수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”고 덧붙였다. (서울=연합뉴스 윤선희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9/06>